

## 메도루마 슌 「기억의 숲」

메도루마 슌 작가의 「기억의 숲」은 태평양 전쟁 말기 오키나와에 미군이 상륙한 지 얼마 안 돼 전투가 한창일 때 오키나와 북부의 섬에서 일어난 미군 강간 사건을 둘러싸고 여러 명의 화자의 말을 통해 60년 간의 긴 세월 동안 전쟁으로부터 새겨진 아픔이, 기억이 그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 작 중의 피해자 사요코는 미군으로부터 강간을 당했고 사건이 일어난 당시부터 60년의 시간을 횡단하며 이에 관해 피해자 측의 관점, 가해자의 관점, 과거의 관점 그리고 현재의 관점을 보여준다. 「기억의 숲」의 작가 메도루마 슌 작가는 소설을 통하여 오키나와 전쟁에 관한 기억을 다루며 작가 자신은 전쟁 체험자가 아니기에 그의 할머니나 할아버지 같은 전쟁 체험자들로부터 들을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다. 이 소설 또한 그의 어머니의 옆집에 살던 여성에게 벌어진 일을 전해 들어 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작가는 전쟁의 아픈 기억이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오키나와의 현실을 작 중의 피해자 사요코의 모습을 통해 드러낸다. 사요코는 피해자임에도 강간 사건을 계기로 마을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오랜 시간 고통 받으며 피해해져 간다. 같은 오키나와 사람임에도 미군에게 복종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 사요코를 강간한 미군에게 복수하고자 작살을 찔러 넣던 세이지, 그 속에서 계속 고통 받는 피해자 사요코를 보여줌으로써 오키나와 전쟁의 잔인함, 참혹함 그리고 그에 대한 오키나와 사람들이 느끼는 지속적인 아픔을 작가는 독자들에게 상기시켜준다. 사실 「기억의 숲」의 일본어 제목은 目の奥の森 한국어로 직역하자면 눈 깊숙한 곳의 숲 이다. 눈 깊숙한 곳의 숲 이라는 제목은 한국인들이 받아드리기엔 난해한 느낌이 들기에 번역자의 재량으로 「기억의 숲」이라는 제목을 갖게 되었다. 「기억의 숲」이라는 제목도 그렇고 눈 깊숙한 곳의 숲 이라는 제목도 그렇고 둘 다 오키나와의 전쟁의 기억을 드러내는 제목이다. 특히 원제인 눈 깊숙한 곳의 숲 이라는 제목의 뜻을 살펴보면 우리의 눈에 닿지 않는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오키나와, 즉 오키나와의 전쟁의 기억은 오키나와 사람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를 드러내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한다. 전쟁의 기억은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잊고 싶은 기억으로 존재하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과거이며 그렇기에 그들 속에서 굶아가는 상처이다. 메도루마 슌 작가는 전쟁을 겪어본 오키나와 사람들에게는 증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여기서 증언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신이 직접 체험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이다. 자신이 전쟁을 통해 직접 겪은 아픔을 그 기억을 다시 꺼내어 자기가 직접 말하는 것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은 자신의 아픔을 혼자 안고 살아가도 힘들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메도루마 슌 작가의 예리한 감수성을 보여주는 「기억의 숲」을 통해 오키나와 전쟁 체험자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억의 숲」은 전쟁 시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미군 강간 사건을 다루며 같은 전쟁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약자로 존재하는 강간 피해자의 이야기를 픽션으로써 보여주며 쉽사리 밝힐 수 없던 현실의 아픔을 작가가 대신 수면위로 꺼내어 그들의 기억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현재 오키나와는 미군 기지 문제를 포함하여 암묵적인 미군의 지배하에 놓여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는 은폐되는 과거 미군의 악행까지 드러내며 현재 이루어지는 미군 기지 반환 운동에 정당성 또한 부여한다.